

남·북한 지리교과서에서의 대(對)유럽관

Europe Image Portrayed in the Geography-textbook of North and South Korea

손용택(한국정신문화연구원, Sohn@aks.ac.kr)

한반도내의 남한과 북한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나 다르다. 이는 아마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분단국가가 지닌 뼈아픈 이데올로기의 반영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적에 함께 사는 한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지리교과서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들의 방향이나 강조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중등지리교과서에서 유럽의 나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가르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서구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보는 시각이 다르며, 특히 개방화 이후의 동부유럽을 바라보는 한국(남한)교과서의 시각은 많이 변하였다. 동구권에 대한 북한 지리교과서에서의 시각변화 역시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북한의 세계지리 영역 교과서인 『지리 4』의 머리말에 제시된 김정일 훈시(말씀)에 보면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경제를 잘 알아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더 잘 알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세계지리 학습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머리말의 가장 하단 문단에서도 그 목표가 잘 나타난다.)

유럽지역의 국가이름 표기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다르다. 서부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등 지역분류에 있어서도 소속국가군이 다소 다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지리교육 내지 공동교과서 편찬을 내다보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할 과제들임에 틀림없다.

1) “우리들은 세계지리학습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 실지 씨떡을 수 있는 산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표1> 북한교과서 『지리 4』의 내용(세계지리 영역)

장의 제목	서술량	주요 내용
제1장. 아시아주	28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부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제2장. 유럽주	21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제3장. 아프리카주	28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북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제4장. 북아메리카주	17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중앙아메리카 및 서인디아제도, 북부지방
제5장. 남아메리카주	12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안데스지방, 안데스동부지방
제6장. 오세안주와 양극지방	4쪽	자연 지리적 특징, 주민과 경제, 오세안주와 양극지방
총 6개의 장(章)	총115쪽	특징: 각 대륙별 설명의 서두에 자연지리적 특징과 주민과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룸.

자료; 명웅범 · 리달복, 2001, 『지리4』, 교육도서출판사; 평양